

■ 광주 전남대 후문에 문연 '위기의 가게'

(위탁 기증품)

“수익금 사회 돌려 드려요”

'위기의 가게'. 아직 개업식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위기'란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것 없다. '위기'란 '위락'과 '기증'의 합성어이기 때문이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에 문을 연 '위기의 가게'가 지난 7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개업식은 다음달 초로 예정돼 있지만 영업 첫날부터 손님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달 말부터 위탁을 받기 시작한 10여일만에 의류, 도서, 식기 등 2천점이 넘는 물건들이 쌓였다.

'위기의 가게' 운영 방식은 독특하다. 고객들로부터 위탁받은 물건을 원하는 가격에 팔아주고, 이익금은 일정한 비율(7대3)로 고객과 가게가 나누게 된다. 안 팔리는 경우를 대비해 '3·6·9'제도도 있다. 물건을 맡긴 뒤 3개월이 지나도 안 팔렸을 땐 고객이 제시한 가격

고객들 원하는 가격 팔아 주고 이익금 7대3 비율 나눠 문화단체 돕고 일자리 만들어... 전국서 분점 문의 쇄도

의 10%를 할인하고, 6개월, 9개월 후엔 다시 10%씩을 깎는 식이다.

'위기의 가게'는 광주지역 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예술기업'(대표 한길우)이 설립했다. 가게 이익금의 10%는 전남대 후문 체육공원에서 열리는 베틀시장 형태의 문화 공연이벤트 '오아시스마켓'에 기증된다.

한길우(35) 대표는 "중고물품을 기증받아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단체들이 여럿 있는데, 용돈이 필요한 대학생의 경우 적더라도 보상을 바라는 심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

었다"며 "개인 뿐 아니라 기업체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용봉동을 시작으로 전국에 분점을 낼 계획이다. 처음 문을 여는 용봉동가게는 '위기의 가게 68호점'으로 이름 지어졌다. 하필 첫 가게가 68호점인 것은 1968년 서유럽을 휩쓸었던 '68혁명'의 살아있는 지성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았다는 것이 한 대표의 설명이다. 계획대로라면 68호점을 기점으로 1호점에서 100호점까지 분점이 생기게 된다.

꼭 희망사항만은 아니다. 이미 조선대측에서 창업 문의가 들어온 상태다. 대학가 뿐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골목에 있는 '위기의 가게 68호점' 직원들이 매장에서 활짝 웃고 있다. 왼쪽부터 정연하, 이창식, 임진, 김윤영씨, 이정자 총괄 매니저, 한길우 대표.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니라 아파트 단지, 광주지역 뿐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전국 어디라도 분점은 가능하다. 가게가 열리는 곳의 특성에 맞는 제품들로 특화한다면 경쟁력도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가에서는 책이나 의류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는 생활용품이나 아동도서가 경쟁력을 갖는다. 또 시골지역의 '위기의 가게'에서는 농산물을 위탁받아 도시의 아파트 지역에서 팔아 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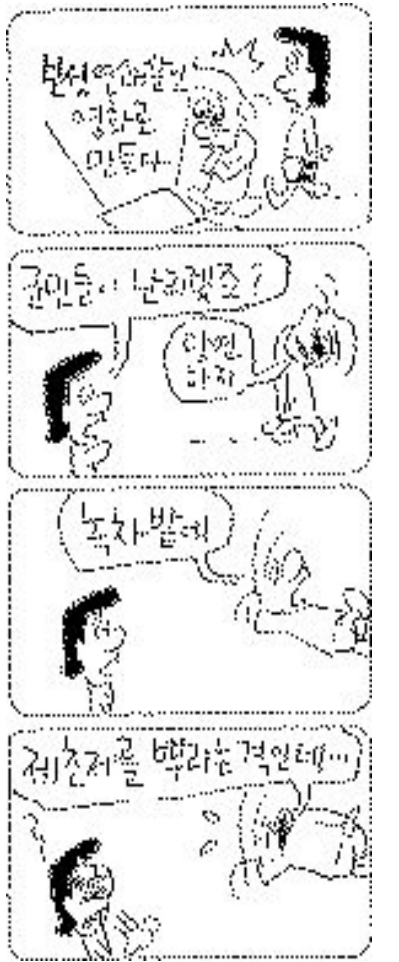
'위기의 가게 68호점' 총괄 매니저 이정자(여·41)씨는 "얼마나 팔릴까 반신반의 한 것

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영업 첫날 매출이 58만원으로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것에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위기의 가게'는 청년 예술가 실업의 대안으로 제시된 '사회적 예술기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에 더욱 의미가 있다. '위기의 가게' 수익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고스란히 재투자된다. '위기'를 자처하고 있지만 '희망'을 엿볼 수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문의 062-232-1202.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나원침 (7486) 김중두



광주·전남 0교시·우열반 안한다

시도교육청 초·중·고교에 지방 지침 보낼 듯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통해 각종 규제를 풀 것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0교시'와 '우열반 편성'이 광주·전남의 초·중·고교에서는 읽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18일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 이은 후속대책 회의를 열고 교과부의 발표 내용에 대한 세부계획을 논의했다.

시·도교육청은 0교시 수업에 대해 일선 학교에 강제로 금지하지는 않되, 학생들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지방하도록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우열반 편성과 관련, 낙후되거나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우열반 편성은 지방양,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과목별·수준별 이동수업을 다양한 교과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학원 강사의 방과후학교 강의에 대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치 않기로 했으며, 도교육청은 보충수업을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전환해 특기적성교육 차원에서 학교 형편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교원정원정책, 도서벽지 교육기관 지정·해제 등을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재조정해줄 것을 추가로 건의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생떼 민원인' 잇단 난동·폭력

광주서 세금 독촉·주차 단속 등에 불만

최근 민원인들이 광주시청과 일선 구청에서 난동을 부리고 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18일 체납 세금 독촉에 불만을 품고 시청 담당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모 건설업체 대표 박모(46)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남 오전 10시 30분께 광주시청 세정담당관실

에서 체납 관리 업무 담당자 이모(42)씨에게 폭언을 하고 수차례 폭력 혐의다. 2003년부터 지방세 5천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독촉을 받아온 데다 이에 따른 차량 인도명령서까지 발급받아 화가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서부경찰도 이날 구청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담당 공무원에게 욕

을 한 하모(52)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서부구청 교통과 사무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주차 담당직원 주모(33)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방해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근 불법 주차차를 하다 단속반에 적발된 하씨는 자신의 차량만 단속하고 다른 차량은 견인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형 기자 golee@kwangju.co.kr

10대 여학생 상습 성폭행

'못된 형제'에 12년형 선고

광주지법 '재범 위험 있다'

10대 여학생들을 7차례나 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친 형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18일 10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남모(36)씨 형제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씨 형제는 밤늦게 귀가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흥기로 위협해 자동차로 납치하거나 흥기로 위협해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했다"며

동반자살 60~70대 노인 자매로 밝혀져

광주서부경찰 '재범 위험 있다'

유족들은 경찰에서 "두 분 사이가 매우 좋았다. 동생의 경우 수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원룸에서 홀로 살았는데, 언니가 동생 집에 자주 놀러 갔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큰 언니 김씨가 최근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신변을 비관, 동반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자살 동기를 조사 중이다. /이중형 기자 golee@kwangju.co.kr

'픽치기' 2명 구속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18일 취객을 상대로 이른바 '픽치기' 수법으로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이모(21)씨 등 2명에 대해 강도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8일 새벽 1시 38분께 광주서부경찰관 한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강모(52)씨를 폭행한 뒤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빼앗아 간 권의점에서 5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다. /이중형 기자 go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CC (주)금복시스템, offering services like personal loans and apartment balconies.

노태우 前 대통령 동생·조카 상대 소송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는 자신인데도 동생과 조카 등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91년 받은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 등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동생인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 호준씨의 장인인 이흥수씨를 상대로 주주지위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받은 정치자금 70억원과 91년 받은 50억원을 동생에게 관리하도록 위임하고 이 자금을 노병화사를 설립했으나 이후 5차례 걸친 증자 후 조카가 당시 대표이었던 박모씨와 상의없이 노재우·노호준·이흥수 명의로 주주명부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120억원은 동생을 거쳐 박씨에게 위임됐고, 박씨는 원고를 위해 자금관리와 회사설립 업무를 행한 만큼 그 효과는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 데도, 이들 3명은 주주로 등재돼 있는 것을 이용해 자기들이 주주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1인 주주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부모 귀족들은 초등생 자살 소동

○아버지로부터 귀족을 들은 한 초등학생이 자살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경찰과 소방차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 ○광주서부경찰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8시께 광주시 모 초 4년생인 A(11)군이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들은 뒤 '오늘이 마지막 통하다. 죽어 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A군 아버지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박군 가족이 사는 서구 치평동 K아파트로 경찰관, 구조·구급대원 20여명과 사다리차 등을 급파했고, 배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혼자 있던 A군을 발견. ○A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는데 이렇게 일이 커질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중형 기자 golee@kwangju.co.kr



송원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우주인 이소연씨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청소년들과 무선교신하는 것을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집으로 돌아갈 시간... 짐 다 꾸렸어요”

우주인 이소연, 광주·전남 청소년과 무선 교신

광주 출신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여·29)씨와 광주·전남 청소년들의 역사적인 아마추어 무선교신(HAM)이 이뤄졌다.

18일 오전 10시40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지구 350km 상공에서 초속 7.7km의 속도로 지구를 순회하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머물고 있는 우주인 이소연 씨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두번째 교신이 성공했다.

첫 교신자로 나선 함평 산상고 2학년 이지민(17)양이 "우주에 가지도 간 개인 물건 중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고 묻자 이씨는 "가족사진이다. 이제 집으로 돌아

갈 시간이 돼서 사진들도 넣고 짐을 꾸렸다"고 답했다.

이어 광주 월계초 6학년 이재현(12)군이 "우주정거장의 운전은 승무원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이씨는 "우주정거장이 궤도를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지구의 중력 때문에 회전 가능하다"며 우주에서 승무원이 필요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교신은 지난 13일 광택 한광고에서의 1차 교신 때보다 교신시간이 5분이나 짧아 교신을 준비한 15명 중 김윤민(12·광주

백일초 6년)양 등 6명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같은 시각 이씨의 모교인 광주 송원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이 학교 6학년 학생 91명이 이 씨와 청소년들의 무선교신 내용에 귀를 기울이며 한국 최초 우주인이 된 선배 이소연씨를 자랑스러워 했다.

교신을 들은 이승훈(12·6학년 1반)군은 "우주인과 지구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다"며 "그런데 잠음이 심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송원초등학교 무선교신 청취는 KT전남본부 무선협연합회(회장 최형문)가 마련했다. /박정옥·정성필기자 jwpark@kwangju.co.kr

초·여·름

광주·전남 22일 한차례 비

18일 광주·전남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26.3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 이 같은 높은 기온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광주·전남지역 낮 최고 기온은 순천 26.3도를 최고로 나타내 25.8도, 담양 24.9도, 광주 25.7도까지 치솟아 올 들어 최고기온을 나타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 안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18일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6.3도 가량 높았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날들이 더 나기에 좋은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인 17일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올라가는 등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 오는 22일께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평년기온을 되찾을 전망이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Weather forecast for April 19th (Wednesday, 14th lunar day) and a table of daily weather from April 20th to 25th.